

'96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국내외 많은 참여업체의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와 함께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산광학제품에  
대한 홍보로 시장 활성화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 김주용 회장/한국광학기기협회

'96 서울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을 맞이하여, 먼저 진심으로 축하하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 전 시회는 국내외의 광학산업 및

사진, 영상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 전문기술자와 다양한 소비자들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광학 및 사진, 영상산업의 홍보기술 및 정보교류 그리고

수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의 광학, 영상 산업계가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이러한 큰

’96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전시회를 통해 산업기반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광학산업은 기초소재 및 가공장비의 수입 의존, 생산기술에 지나치게 치중됨으로써, 부품 전문업체의 판매망 구성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통신기기와 같은 유니트의 내수시장 부족, 카메라, 현미경 등의 기기설계 인력 부족, 반도체 Stepper와 같은 System에 대한 초보 단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부의 지원 아래 업체간 협력 및 공조체제를 수립, 상품정보 및 기술정보의 공유화, 장비 및 생산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기술자의 교육과 업체별 제품의 특화, 반도체장비 등 System에 대한 공동투자과 해외부품 판매망의 공동구축 등 정부와 각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해외시장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학 및 영상산업은 2000년대 첨단산업의 한 분야이기에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즈, 레이저 용접기, 의료기기, 카메라, 복사기, CD, 촬

“

광학 및 영상산업은 2000년대 첨단산업의 한 분야이기에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기술은 카메라·복사기·반도체 스테퍼 등 기초부품에서 부터 사무기·산업용기기 및 첨단반도체장비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범위가 무한하여 2000년에는 국내시장만 3조6천억원으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 국내 광학, 영상산업체가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이러한 광학 전시회를 통해 산업기반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영기, 캠코더, 반도체 Stepper 등 기초부품에서 부터 사무기기, 산업용기기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범위가 무한하여 2000년에는 국내 시장만 3조6천억원으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많은 참여업체의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사의 홍보와 국산 광학제품에 대한 과시 뿐만 아니라 광용기기

의 흐름 파악 및 미래 신제품의 예견과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6 서울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전시회가 국내외 광학인들의 만남과 협력을 통한 발전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